



# 궁·금·함·니·다

◆ 본고는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reapork.or.kr)의 '전문가 상담코너'에 게재된 질문과 답변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

## .. 사 양 ..

**Q** 10,000두 정도 사육하는 농장입니다. 50% 정도의 자돈을 위탁 보내고 있습니다. 위탁장에서 암수구별을 하여 사육하고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암수혼합사육을 하는게 옳은 것인지, 어느 쪽이 비육돈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합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대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분리 사육이 옳은 방법입니다.

규모가 작은 농장에서는 분리 사육에 어려움이 많아서 못하는 실정인데 반해, 귀 농장에서의 규모라면 충분히 분리 사육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1. 거세돈은 성장 동안 지방축적이 많고 일당증체량이 높아 에너지가가 낮은 사료를 급여해야 하고, 암태지는 사료섭취량이 낮으면서도 우량의 살코기를 생산하여 높은 도체등급을 제공하니 아미노산이 높은 사료(약 1%)를 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암수 분리 사육시 거세돈은 출하체중에 빨리 도달하므로 출하시기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비거세돈은 당연히 분리 사육해야 하고, 거세돈일지라도 서열 다툼, 발육 불균형, 출하 체중,

도체 등급, 사료 급여의 원활한 조절을 위해 분리 사육이 좋습니다.

**Q** 최근 들어 포유자돈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있어서 왜 그런가하고 관찰했더니 모돈의 유두 주변이 딱딱해지고 해서 젖물이 안 좋은 것 같다고 판단되는데 처리방법은 없는지? 또한 사료를 안 먹고 있는 모돈에게는 더위로 판단 향문으로 관장을 해 주었는데 단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황윤재 금오BPC상무>  
말씀하신 내용을 보아서는 유방염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유방부종, 저유증, 유선발육부전, 무유증 등이 있습니다만 몇 개의 유두 주변에서의 문제라면 유방염, 특히 대장균이나 클렙시에라의 감염에 의한 전신성 유방염을 제외한 포도상구균이나 연쇄상구균 등에 의한 유방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치료는 여러 항생제, 옥시토신,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의 투여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 만일 이런 상황이 농장에서 자주 나타난다면 분만 전부터 일정 기간 사료에 항생제 첨가, 분만 전 지속성 항생제 주사 등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육 중요한 사항은 환경적 또는 관리상의 발병 요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보다 중요합니다.

**Q** 모돈변이 질퍽한게 있는데 왜 그런건지요?  
또한 어제 수정이 끝난 돼지가 오늘 또 다시 발정을 때 내는 울음소리를 자주 내는데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 <김태주 한국애니멀클리닉&컨설팅대표>  
모돈 자체의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길 경우 특히 대장이나 소장 용모가 일부 파괴되었을 경우엔 수분 흡수나 소화장애로 연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급이기통이나 오염, 변패 사료일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책은 소화 효소제나 고급 유기산제 등을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러마리가 한꺼번에 그럴 경우는 세균성이나 바이러스성 질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가까운 전문 수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체에 따라 발정 지속기간이 긴 돼지들도 있습니다. 충분한 교배를 시켰다면 그대로 다음 발정기까지 기다려 보시고, 혹 중부 타이밍이 너무 빠르지 않았는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하다면 중부 4~5일 후 progesteron제를 투여해 보시지요, 수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 번식 및 육종 ● ●

**Q** 가끔 초산돈인 경우 분만을 완료하지 않고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분만을 하기도 합니다. 하루나 이틀이 지나면 대부분이 죽은 새끼를 출산하던지 아니면 모돈이 많이 상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요? 일상적으로 유도분만제를 사용하면 태반까지 다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초산돈은 임신 중 사

료급이 방법을 달리 해야 하는지요? 일상적으로 80일 이후에 경산돈의 사료급이 방법으로 사료를 급이 하다보니 복중의 새끼가 너무 커 버려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A** <심금섭 천안연암대학 축산과 교수>  
질문하신 내용은 크게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 분만지연에 관한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모돈은 분만이 개시된 후, 매우 짧은 시간에 분만이 완료되고 태반이 나오는 후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돈이 나오고 다음 자돈이 30분이상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경우를 분만지연으로 보고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주사하여, 신속한 분만을 유도합니다. 옥시토신제는 신속히 주사직후 자궁이 수축되어 분만이 가속화될 수 있는 약제이며, 옥시토신 처리 이후에도 자돈이 나오지 않는 경우는 관리자가 손을 이용하여 꺼내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가급적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마지막 선택으로 사용시는 철저히 소독을 한 후 실시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인 초산돈의 사료급이 방법은 우선 초산돈이 첫 교배시 일령과 체중이 최소 140일 130Kg 이상이 된 상태에서 교배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초산돈은 이 시기에 자돈의 성장 및 자기 자신의 성장도 같이 일어난다는 점을 같이 고려해야 합니다.

분만전 2~3주전에 사료 급이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자돈의 성장이 자궁 내에서 급속히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사료급여와 초산돈의 난산과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으나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자궁의 수축성과 관련된 뇌하수체 후엽에서 옥시토신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은 것이 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 인공수정시 정액 역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 주로 정액이 역류하며, 어떤 점을 개선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심금섭 천안 연암대학 축산과 교수>  
정액이 역류하는 요인은 주입시기가 너무 빠른 경우와 발정이 종료되는 늦은 시기에 정액을 주입하거나 정액 주입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입니다. 또한 모돈의 자세를 사지가 평행을 이루도록 주입 전에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액이 정상적으로 들어가도 10~20분 후에는 돼지의 움직임에 의해 정액이 역류될 수 있으며 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정액이 절반 이상만 정상적으로 자궁 내로 들어갔다고 판명되면 정상적인 수태를 하는데 이상이 없습니다. 주입기가 정확히 자궁경관에 결합된 것을 확인하고 5분정도 정액이 천천히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6산 이상의 노산차에 인공수정시는 옥시토신을 정액에 혼합하여 주입을 하면 수태율 산자수의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정액에 혼합하는 정액 주입직전에 1cc주사기로 0.5cc(5단위)를 정액에 혼합하여 가볍게 흔들고 바로 주입하면 됩니다.

● ● 질 병 ● ●

**Q** 자돈을 관리하는데 있어 검사를 한 결과 특별한 질병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돈이 2~3일령이 되면 설사를 하고, 빠른 것은 태어나자마자 2일령이 되기 전에 설사를 합니다. 이런 건 어떤 경우일까요?

**A** <박봉균 서울대학교 수의과학대학 교수>  
특별한 원인이 없이 설사를 하는 경우 가

장 큰 원인 중의 하나는 자돈들에게 주어지는 온도입니다. 보온등이나 보온매트의 온도를 체크해보십시오. 요즘 낮기온이 높아 포유모돈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 환기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다보면 신생자돈에 대한 온도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온에 가까운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보온상자의 이용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양돈장에서 일하는 인부가 일하는 도중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업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금을 신청하였으며 현지 실사를 나왔습니다. 사료빈에 설치된 사다리에 방호울(등받이 울)과 소독기 분무기 벨트에 방호 덮개를 부착할 것을 시정지시 받았으며 꼭 설치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시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대한양돈협회 지도·기획부 이광호 주임>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제3항)에 수직 2m 이상의 사다리인 경우 방호울(등받이 울)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소독용 분무기 동력전달부 벨트에 방호덮개를 부착해야 하는 것도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 제1항 제1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해예방차원으로 시설물 관리가 부실 할 경우 시정 지시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시정지시 후에도 시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리에 취해지게 됩니다. 기한을 넘겼을 경우는 사법처리를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양돈**

